

내신 실질반영률 20~30%

정부 권고안 30%에 근접
연세·서강 등 20% 안팎

2008학년도 정시모집 학생부(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던 대학들이 29일 대부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확정, 발표했다.

대다수 대학은 교육부 권고안(30%)에 근접한 수준인 20~30%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내놓아 정부 요구에 대체로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은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20% 안팎에서 결정하거나 내신 등급간 점수 차를 차등 적용하기로 해 교육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2008학년도 정시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비율을 발표한 대학은 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숙명여대·국민대 등이다.

우선 연세대는 인문계의 경우 학생부 22.2%(500점 만점에 기본점수 464점), 수능 74.1%(400점 만점에 기본점수 278.86점), 논술 3.09%(100점 만점에 기본점수 95점) 등의 실질반영비율을 내었다.

자연계는 학생부 22.76%(500점 만점에 기본점수 464점), 수능 74.08%(400점 만점에 기본점수 282.8점), 논술 3.16%(100점 만점에 기본점수 95점) 등을 각각 반영키로 했다.

서강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21.28%(400점 만점에 기본점수 300점), 수능 76.6%

(500점 만점에 기본점수 140점), 논술 2.12%(100점 만점에 기본점수 90점)를 각각 실질반영비율로 발표했다.

성균관대는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정시 '가'군 23.75%, '나'군 23.08%로 각각 결정했다.

정시 '가'군(인문계·자연계 공통)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수능이 72.73%(400점 만점에 기본점수 200점), 학생부가 23.64%(500점 만점에 기본점수 435점), 논술·면접이 3.63%(100점 만점에 기본점수 90점) 등이다.

한양대는 인문계 23.5%, 자연계 23.01%의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대는 학생부 23.1%, 수능 73.1%, 논술 3.7% 등으로 확정했다. 숙명여대는 정시모집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비율을 학생부 29.75%, 수능 65%, 논술 5.25% 등으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4일 전형요소별 명목반영비율과 실질반영비율을 일체시켜 학생부, 논술, 면접을 각각 50%, 30%, 20%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정시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학생부 17.96%, 수능 79.04%, 논술 2.99% 등으로 결정했고 한국외대는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30.77%(500점 만점에 기본점수 300점)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내신 비율 30%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 측이 자율로 정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한 것인 만큼 30%에 못 미친다고 해서 당장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수는 없다고 한 바 있다. /연합뉴스

광주 옛 기무부대 터 역사공원으로 탈바꿈

5·18 민주화운동 현장 보존
시, 연말까지 용도변경 추진

광주 옛 기무부대 터가 공원으로 바뀐다.

광주시는 29일 "서구 쌍촌동 옛 기무부대 터를 5·18 민주화운동을 알리고 기리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보존할 역사공원 조성 ▲울창한 수림을 이용한 녹지확보 ▲문화화중심으로로서의 역사·문화·교육 거점 확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기무부대 터 3만5천149㎡(1만633평)에 대한 공원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시는 앞으로 수목 조사 등 환경성 검토를 거친 뒤 연말까지 제1·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인 이곳을 도보권 근린공원으로 용도변경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 5월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5·18 교육의 장과 휴식공간 등 시민공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하지만 감정평가액 152억원인 이 땅을 매입하기보다는 5·18의 상징성을 내세워 무상양여나 임대하는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고, 공원조성도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5·18 시작지보평)에 대한 공원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시의회의를 열고 80년 5월 당시 신군부의 사실상 지휘본부였던 이 부

지를 사적지로 지정했다.

서구 쌍촌동 993-1에 조성된 기무부대(505보안대)는 5·18 당시 광주 학살을 지휘했던 신군부 본부가 있었던 곳으로 비상계엄과 5·18 과정에서 민주인사와 시민군의 구급, 교문수사가 이뤄진 5·18의 중요한 역사 현장 중 한 곳이다. 기존 사적지가 저항과 학살을 보여준 반해 이곳은 신군부가 시민과 민주 열사들에게 자행한 폭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무부대는 지난 2005년 11월 북구 오치동 31사단으로 이전했지만 5·18 당시 시민군에게 고문과 조사 등이 가해졌던 보안대와 강당, 행정동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폭우로 도로 침수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29일 오전 8시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진 인근 왕복 4차선 도로가 2시간여 동안 침수됐다. 침수는 인근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하수구를 막으면서 빚어졌다. 이날 광주는 하남공단 112.5mm를 최고로 시간 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인기 MC 김승현도 허위학력 논란

인기 MC 김승현(48·사진)의 인터넷 프로필 이력도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현은 네이버와 야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로필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및 석사로 기재돼 있지만 김승현은 이 대학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승현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까지 내 입으로 내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



서 "나는 대학교에 진학한 적이 없고 1993년 11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년 전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인터넷 프로필이 잘못 기재된 것 같다"면서 "이미 소속사에 프로필 수정 요구를 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청장퇴진 주장’ 황 총경 감봉 3개월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폐 의혹을 둘러싸고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주장했던 황운하 총경(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29일 정사 내 회의실에서 중앙인사위원회를 열고 황운하 총경(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황 총경이 경찰청장 퇴

진 요구와 관련한 개인 의견을 여과 없이 공개적으로 개진해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을 저속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언론을 통해 경찰이 내부에 갈등상황이 있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비추어 조직의 위신이 실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경에 대한 징계가 예상과 달리 수위가 낮아진 내려짐에 따라 경찰 내부 반발이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 총경은 징계 자체에 불응하며 "소청과 소송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인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황 총경은 "징계 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징계 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 감봉 3개월 결정도 내게는 무거운 징계다. 즉각 소청할 것이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을 재촉하는 비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겠다.

8월 30일
(음 7월 18일)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비	23~28
주요도시	흐리고 비	24~28
서울	흐리고 비	23~28
부산	흐리고 비	24~29
대구	흐리고 비	24~29
대전	흐리고 비	24~29
전주	흐리고 비	24~29
제주	흐리고 비	24~29
제주도	흐리고 비	24~29
충청도	흐리고 비	24~29
강원도	흐리고 비	24~29
경기도	흐리고 비	24~29
충남도	흐리고 비	24~29
충북도	흐리고 비	24~29
전라도	흐리고 비	24~29
제주도	흐리고 비	24~29

서울날씨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뒷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3.0m
남해상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2.5m
뒷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3.0m
목포 밀물 < 03:16 썰물 < 08:34
목포 밀물 < 15:29 썰물 < 20:48
여수 밀물 < 10:17 썰물 < 04:05
22:36 썰물 < 16:14

▲해돋이 06:03 ▲해질 19:04 ▲달뜨기 20:00 ▲달짐 07:4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1(금)	9/1(토)	2(일)	3(월)	4(화)	5(수)
날씨						
최저/최고	23/30	23/31	22/28	23/28	22/29	23/30

광주·전남 시간당 30mm 폭우 1명 사망·1명 실종

광주·전남지역에 연이은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1명이 물에 빠져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날 오후 1시49분께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선착장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변모(70·장성군 북이면)씨가 수초에 걸린 낚시바늘을 제거하려다 물에 빠져 숨졌다.

앞서 지난 28일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부근 섬진강변에서 친구들과 낚시를 하던 문모(63·구례군 구례읍)씨가 실종돼 경찰과 119구조대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29일 오후 6시 현재 영광 149mm를 최고로 ▲장성 116mm ▲광주 112.5mm ▲구례 66mm 를 기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광주·전남지역은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10~6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법에도 눈물이...

식물인간 아들 안락사 아버지 불구속

불치병에 걸려 식물인간이 된 아들(28)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윤씨(51·담양군 창평면)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29일 "윤씨가 구속될 경우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막내 아들(22)을 돌볼 사람이 없는데, 자신도 5개월 전 위암수술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윤씨를 불구속하고 관련 서류를 송치하라"고 검찰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끝났고 한 달 이내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면서 안락사(존엄사) 논쟁이 다시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K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이던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뒤 집으로 데려와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쏟아붓는 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원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1/3로 줄었다
전국 최대, 최대 절감효과를 자랑하는 신 기술

한정수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1. 10월 31일까지 무상지원금
2. 한달간 매달 1만원씩
3. 난방기 1대당 무상 지원금 10만원

TEMPIA
02-956-4322, 080-701-7117

S the 1 요리학원 대특강 개강
* 2가지 커리큘(carving) 과일포장장식·스시(초밥)수강생모집 *

맛과 멋이 살아있는 행복한 요리교실! 당신을 초대합니다

- 10월 10일(토) 18시 30분
- 10월 17일(토) 18시 30분
- 10월 24일(토) 18시 30분
- 10월 31일(토) 18시 30분
- 11월 7일(토) 18시 30분
- 11월 14일(토) 18시 30분
- 11월 21일(토) 18시 30분
- 11월 28일(토) 18시 30분
- 12월 5일(토) 18시 30분
- 12월 12일(토) 18시 30분
- 12월 19일(토) 18시 30분
- 12월 26일(토) 18시 30분
- 1월 2일(토) 18시 30분
- 1월 9일(토) 18시 30분
- 1월 16일(토) 18시 30분
- 1월 23일(토) 18시 30분
- 1월 30일(토) 18시 30분

S the 1 요리학원 (062)385-0723~4